

1.글로벌 채권

- * <뉴욕 채권> 국채가격은 9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로 5일 연속 하락
 - * Fed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대와 ECB의 테이퍼링 우려가 지속하는 속에 주간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하락세로 출발
 - * 영국이 경제와 물가 부양을 위해 통화에서 재정으로 정책을 선회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규모 영국 국채 매도세가 나온 여파가 뉴욕에도 전해짐
 - * ECB 부총재의 테이퍼링 부인으로 국채가 낙폭이 가파르게 줄기도 하였으나 오후 들어 낙폭을 다시 확대
 - ECB 부총재, '테이퍼링 루머는 근거가 없고 ECB의 경기 부양 정책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향해 상승하기 시작할 때까지 지속될 것'

[미국]

2y 0.85% (+1.8bp)...4개월래 최고
 10y 1.74% (+3.5bp)
 30y 2.45% (+3.0bp)

[기타 10Y물]

영국 0.87% (+5.5bp)
 독일 -0.02% (-1.3bp)
 프랑스 0.28% (-4.2bp)
 이탈리아 1.34% (-1.9bp)
 스페인 1.00% (-2.7bp)
 그리스 8.11% (-1.1bp)

2.글로벌 증시

- * <뉴욕 마감> 연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가늠케 해줄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혼조세
- * 장초반 하락 출발하였으나 ECB의 테이퍼링 공식 부인 & 유가 상승에 힘입어 하락세 다소 만회하며 혼조세로 마감
- * 실업보험청구자수가 감소해 연내 금리 인상 우려가 커졌지만 다음날 발표되는 9월 비농업부문 고용 결과를 확인하자는 심리로 지수는 좁은 폭에서 움직임
- * 美 주간실업보험청구자수 254K-> 249K (예상:257K)...지난 4월 이후 최저 수준
 - 변동성이 적은 4주 이동평균 실업보험청구자수 256.0K-> 253.5K... 1973년 12월 이후 가장 낮

은 수준

- * <유럽 마감> 항공업체 실적 부진 우려·파운드 급락에 일제 하락
 - 이지제트, 연간 실적이 29%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6.9% 하락
 -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으로 파운드화 가치 하락

* <도쿄 마감>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나타내 투자심리를 북돋으며 금융주와 수출주 등 경기 변동주가 증시를 이끌

DOW30	18268.50	(-0.07%)
NASDAQ	5306.85	(-0.17%)
S&P500	2160.77	(+0.05%)
NIKKEI225	16899.10	(+0.47%)
SHANGHAI	3004.70	(휴장)
FTSE100	6999.96	(-0.47%)
DAX30	10568.80	(-0.16%)
CAC40	4480.10	(-0.22%)

3.글로벌 환시

- * 달러화, 다음날 발표되는 9월 비농업부문 고용 호조로 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로 상승
 - 파운드화, 하드 브렉시트 우려로 달러에 31년 만에, 유로화에 5년래 최저치를 다시 기록

유로/달러	1.1149	(-0.0054)
유로/엔	115.89	(-0.08)
달러/엔	103.93	(+0.45)
파운드/달러	1.26138	(-0.01332)
NDF	1115.00 / 1116.00원...3.00원 상승	

4.글로벌 상품

- * <국제 유가> 석유수출국기구(OPEC) 비회원국의 감산 동참 기대 등으로 상승
 - OPEC 사무총장, 다음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에너지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에너지장관과 비공식 회담 예정 <WSJ>
 - OPEC 내의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칼리드 알-팔리 에너지장관도 만나 사우디 산유

량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

- 美 남부 지방의 허리케인이 원유 공급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 상승에 한 몫

* <국제 금값> 9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 결과 발표라는 대형 이벤트를 하루 앞두고 주간 고용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 하락

WTI 50.43 (+1.2%)...지난 6월 초 이후 최고치

COMEX금 1253.00 (-1.2%)...4개월래 최저

5. 전일 국내 지표

코스피 2065.30 (+0.60%)

코스닥 684.33 (-0.16%)

원/달러 1112.20 (-1.50)

KTB 110.70 (-0.03)

LKTB 131.79 (-0.29)

6. 전일 국내 주요 금리

* 국고채 금리, 장중 보험권에서 움직이다 약세로 마감. 변동성이 축소된 가운데 대기매수가 유입됐지만 결국 장 막판 되돌림이 나타남. 美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장중 딜링용 매수가 유입되기도 함.

1y 1.3330% (+0.20bp)

3y 1.3210% (+0.50bp)

5y 1.3410% (+1.20bp)

10y 1.5360% (+2.60bp)

20y 1.5840% (+2.70bp)

30y 1.5950% (+2.70bp)

CD 1.3400% (0.00bp)

7. 본드 스왑 스프레드

1Y -2.90bp (+0.20bp)

2Y	-4.60bp	(+0.95bp)
3Y	-2.60bp	(+0.50bp)
5Y	-1.85bp	(+1.05bp)
10Y	-12.85bp	(+1.15bp)

8. IRS/CRS 동향

* IRS, 국채선물 약세에 상승 마감. 장기물 위주로 거래는 잦아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졌으나 금리 변동 폭은 크지 않았음.

* CRS 금리도 소폭 상승. 거래도 거의 없던듯 하고 금리변동 폭도 작았음.

*IRS 금리

1Y	1.3100%	(+0.50bp)
2Y	1.2950%	(+0.75bp)
3Y	1.2950%	(+1.00bp)
5Y	1.3225%	(+2.25bp)
7Y	1.3475%	(+2.75bp)
10Y	1.4075%	(+3.75bp)

1*2Y	-1.50	(+0.25bp)
2*3Y	0.00	(+0.25bp)
2*5Y	2.75	(+1.50bp)
3*5Y	2.75	(+1.25bp)
5*7Y	2.50	(+0.50bp)
5*10Y	8.50	(+1.50bp)

*CRS 금리

1Y	1.1800%	(+0.50bp)
2Y	1.0400%	(+1.50bp)
3Y	0.9950%	(+2.00bp)
5Y	0.9300%	(+2.50bp)
7Y	0.8600%	(+1.50bp)
10Y	0.8300%	(+1.50bp)

9. 주요뉴스

[해외]

* 스탠리 피셔 Fed 부의장 '최근 몇 년 동안 자연이자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정책 결정자들이 염두에 뒀다' 경고

- 지난 8년 동안 美 금리 낮은 수준으로 유지... 경제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미
- 이자율 하락으로 경제가 부정적인 충격에 취약해지면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

* ECB 통화정책 위원들, 유로존의 물가 상승을 위해 추가 완화 정책을 단행할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 <ECB 9월 정책위원회 의사록>

- '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현재 수단이 제대로 적용될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ECB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할 능력이 있고 준비가 돼 있다'

* IMF, '지난해 기준으로 전세계 총 부채 \$152조(약 16경 9328조원)로 사상 최대 기록

- 전 세계 부채 가운데 2/3 가계와 비금융기업 등 민간부문의 빚...과도한 민간부채가 세계 경제 회복에 주요 역풍으로 작용하고 금융안정성도 위협한다'

* IMF '유럽은행 중 3곳 중 1곳, 경기 회복돼 기준금리가 상승해도 최소한의 수익성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' 분석

- 부실채권 감축 & 퇴출이나 통폐합 등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

[국내]

* 임종룡 "DTI 현 수준 유지 바람직...가계부채 대응 가능"

- "집단대출에 DTI 적용 현실적으로 어렵다"

* 임종룡 "공매도 공시제도 문제 있어...개선안 준비"

금일 예정 지표

[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 연설]

[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연설]

[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&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연설]

미국-9월 실업률 (예상:4.9%, 이전:4.9%)

-9월 비농업고용 (예상:175K, 이전:151K)

-9월 평균임금(MoM) (예상:0.2%, 이전:0.1%)

-8월 도매재고(MoM) (예상:-0.1%, 이전:+0.0%%)

독일-8월 산업생산(MoM) (예상:0.8%, 이전:-1.5%)

영국-8월 산업생산(MoM) (예상:0.1%, 이전:0.1%)

-8월 제조업생산(MoM) (예상:0.5%, 이전:-0.9%)
